인문 상경 (오전)

2017학년도 신입학 수시
논술 전형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답안지와 문제지에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는 정답 외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마시오.
·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 고사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시 퇴실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등)로만 작성하시오.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 사용 금지)
2. 답안지 수정 시에는 지우개(연필, 샤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가로로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작성 하시오.(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금지)
3. 답안은 1장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나 기존 답안지 제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4. 답안지 교체로 인한 책임(시간 부족 등)은 요청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5.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1) 답안을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등)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기를 한 경우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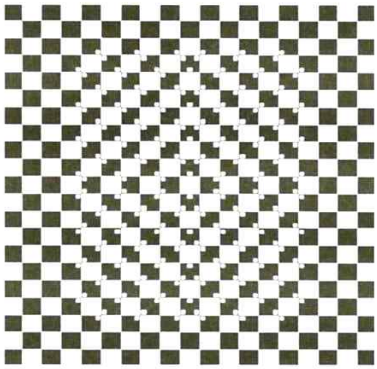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아래 그림은 '왜곡된 체스판'이라고 불리는 착시 그림의 예이다. 작은 정사각형들로 구성된 체스판인데, 가운데로 갈수록 직선이 곡선으로 변하고 정사각형도 볼록 튀어나와 보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림엔 곡선과 휘어짐이 없다. 작은 사각형들은 모두 직선이다. 검은색과 하얀색 정사각형들이 서로 교차되는 가운데 중앙 부분의 검은 정사각형들 안에 존재하는 더 작은 하얀 정사각형들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각각의 부분들에 적용되었던 형태가 전체로 가면서 왜곡되는 데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그림은 '구성의 오류'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영국의 어느 마을 한가운데에 누구나 양들을 끌고 와서 먹일 수 있는 무성한 목초지가 있었다. 이 목초지는 공유지였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 제한 없이 먹이를 먹일 수 있었다. 하지만 풀이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먹이는 양의 수를 제한해야만 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목초지를 관리하고 목초지에 방목된 양의 수를 제한해 보기도 하였지만 별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 모든 농부들은 목초지가 망가지기 전에 자기 양떼를 먹이려 했고, 삽시간에 양들이 모여들어 목초지는 황폐화 되었다.

개개의 농부 입장에서 양 한 마리를 늘리게 되면 양 한 마리의 가격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물론 양 한 마리가 먹는 만큼 풀이 줄어들게 되지만, 이로 인해 각 농부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미미하다. 따라서 개개의 농부 입장에서는 양을 한 마리 더 키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도나도 양을 한 마리씩 더 키우다 보면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되어 모든 농부가 더 이상 양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며, 개별 농부 이익의 합이 전체 이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구성의 오류'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아래 표의 데이터는 A사와 B사가 생산하는 위염약의 치료효과를 실험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표에 따르면 A사의 위염약은 경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0명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5명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사의 위염약이 총 100명의 환자 중 65명에게 효과를 나타내 65.0%의 완치율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경증		중증		합계	
	실험 대상 수	효과 수	실험 대상 수	효과 수	실험 대상 수	효과 수
A사	50	40	50	25	100	65
완치율	(80.0%)		(50.0%)		(65.0%)	
B사	120	90	10	4	130	94
완치율	(75.0%)		(40.0%)		(72.3%)	

[뒷면에 계속]

[문제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구성의 오류'를 정의하고, 제시문 <다>의 표에 나타난 '구성의 오류'의 내용을 쓰고, 그 원인을 밝히시오. (500자, 40점)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행동은 잘못일까?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암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데, 이러한 법은 성인이 서로 동의해서 내린 결정을 거스르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장은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똑같이 이익을 얻고, 그 결과 집단의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 그들은 대리 줄서기와 암표 판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돈을 받고 대신 줄 서는 사람이나 암표상이 입장권을 손에 넣었다면 그 뒤에 서 있던 사람, 즉 높은 가격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극장 측이 연극을 열렬하게 관람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관람석을 채우고 공연이 주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극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입장권에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연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누릴 관객으로 극장을 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입장권 분배를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파는 것이 공연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는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그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거쳐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에 도달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이 감정은 우리의 '통치권자'다. 이는 모든 행위를 지배할 뿐더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의 주권에 달렸다."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입법자에게도 해당한다.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민과 입법자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정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더한 뒤에 총비용을 뺀 결과가, 다른 정책보다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공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워낙 단호해서 그것을 반박할 그럴듯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반드시 행복의 극대화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롤스는 이렇게 추론한다. 우리가 집단의 삶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모습 그대로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하자. 어떤 원칙을 고를까? 이 작업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원칙이 다를 테고, 그 원칙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도덕적,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를 반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인종, 민족, 종교에서 소수 집단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 타협점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타협은 했을망정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한 교섭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타협점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사회계약을 공정한 합의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뒷면에 계속]

한 가지 사고실험을 생각해보자.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 나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한다고 상상하자. 나의 계층과 성별, 인종과 민족,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도 모른다. 남보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지, 든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문제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문제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문 <가>의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리 줄서기가 도덕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800자, 60점)

[끝]

이 면은 여백입니다.